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한국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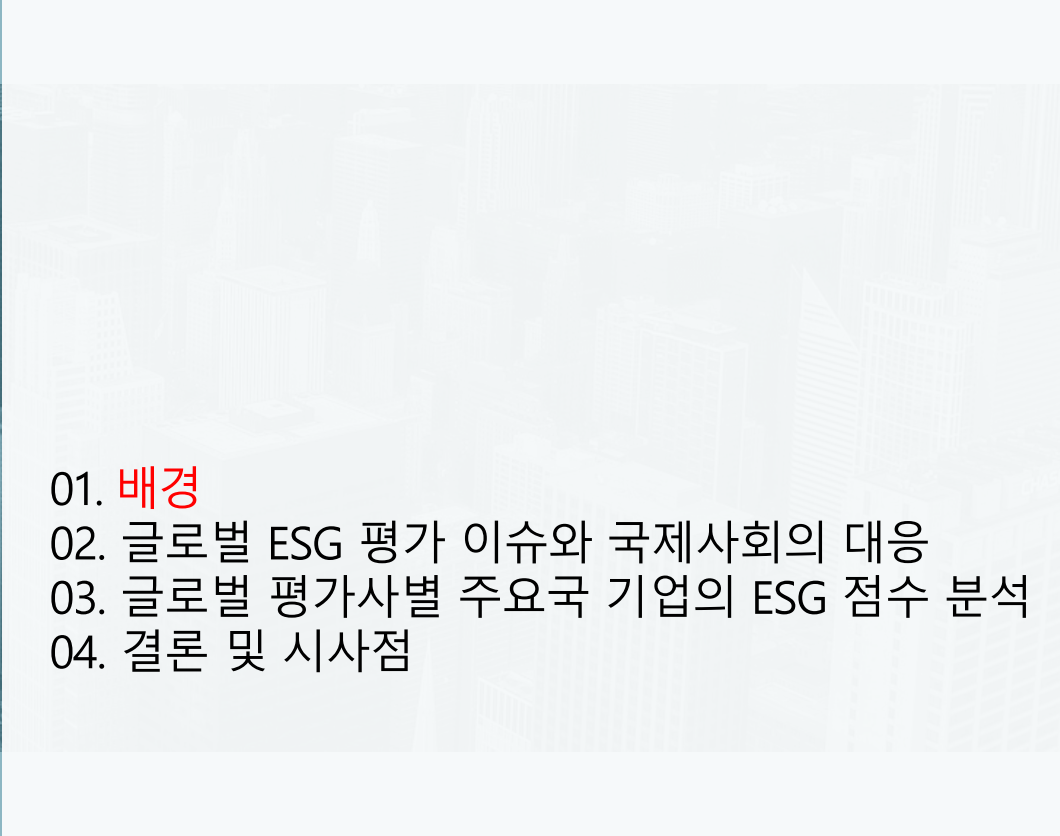
캡스톤 24-2학기
3주차

고보민 교수

자료 출처: 박지원, KIEP(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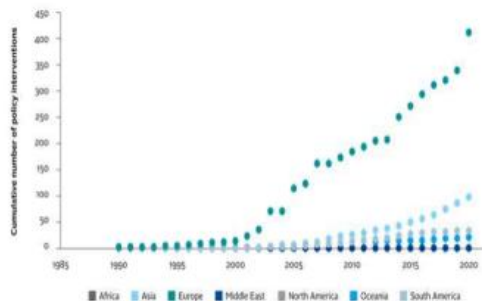


개요

- 
- 
- 
- 01. **배경**
 - 02.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 03.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 04.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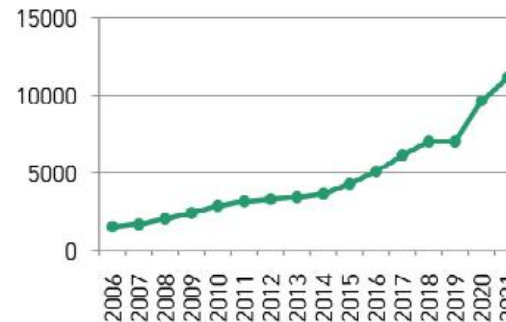
- 기업 ESG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ESG 공시(지속가능 보고서)뿐만 아니라 ESG 성과 평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ESG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의 성과 및 위험 관리를 종합하여 하나의 숫자 및 등급으로 요약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그림 1. 전 세계 ESG 관련 정책 수



주: 의무 및 자발적 제도 모두 포함.
 자료: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2022. 3. 17), "Regulation Database Update: The Unstoppable Rise of RI Policy," <https://www.unpri.org/pri-bl-og/regulation-database-update-the-unstoppable-rise-of-ri-policy/7352.article>(검색일: 2022.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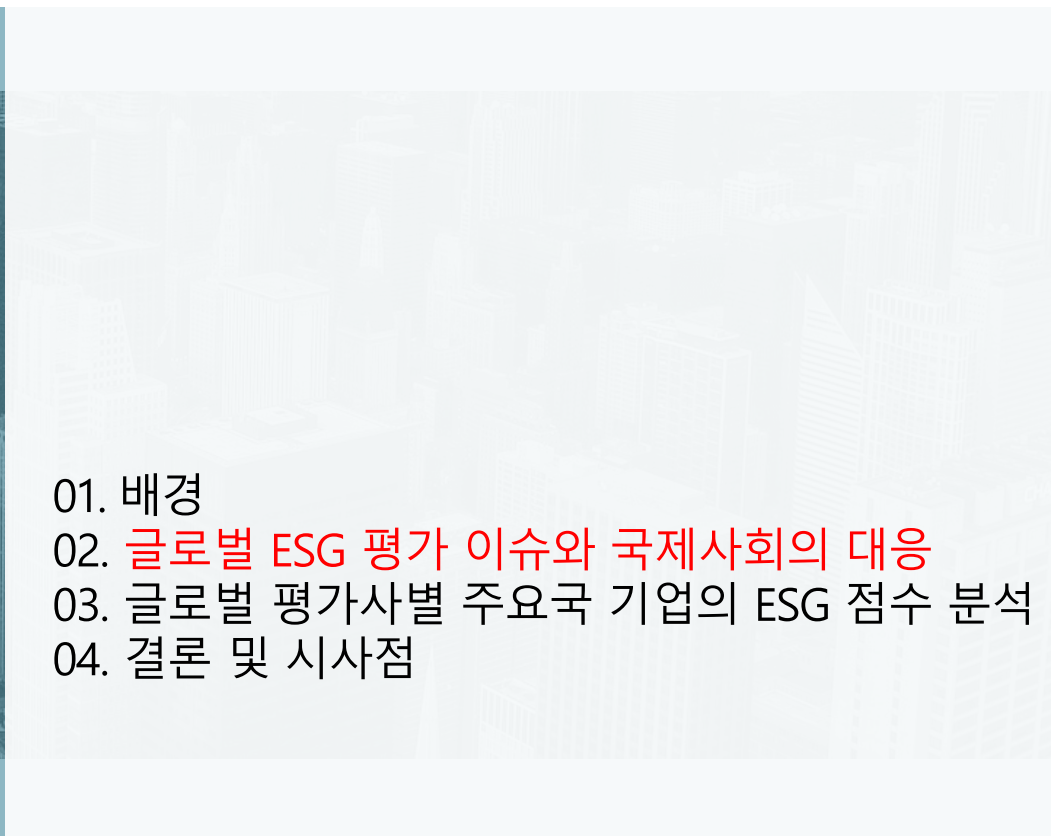
그림 2. 레피니티브 ESG 평가 기업 수



주: 레피니티브의 ESG 데이터는 2017년까지 톰슨로이터 As set 4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2018년 레피니티브로 이름을 변경하여 발표하고 있음.¹⁾
 자료: 레피니티브 ESG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이 존재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대표적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는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레피니티브(Refinitiv), MSCI, 무디스(Moody's), 블룸버그(Bloomberg), FTSE Russell, S&P Global, CDP Climate, ISS 등이 있으며, 한국의 지역 평가사로는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구 한국지배구조원) 등이 있음.
- ESG의 화제성에 힘입어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평가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한 평가사가 130개, 지역 평가사를 포함하면 600여 개에 달함.
- ESG 평가는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며,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존재함.

개요

- 
- 
- 
- 01. 배경
 - 02.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 03.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 04.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가. ESG 평가 신뢰성 및 투명성

■ 최근 ESG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평가간 낮은 상관관계 △평가기관간 비교 불가 △정보 투명성 부족이 있음

■ 전문가들은 기업간 지속가능공시의 차이 및 공시 형태가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표준화된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함.

표 1. 주요 글로벌 평가기관간 상관관계

	KL SA	KL MO	KL SP	KL RE	KL MS	SA MO	SA SP	SA RE	SA MS	MO SP	MO RE	MO MS	SP RE	SP MS	RE MS	Average
ESG	0.53	0.49	0.44	0.42	0.53	0.71	0.67	0.67	0.46	0.7	0.69	0.42	0.62	0.38	0.38	0.54
E	0.59	0.55	0.54	0.54	0.37	0.68	0.66	0.64	0.37	0.73	0.66	0.35	0.7	0.29	0.23	0.53
S	0.31	0.33	0.21	0.22	0.41	0.58	0.55	0.55	0.27	0.68	0.66	0.28	0.65	0.26	0.27	0.42
G	0.02	0.01	-0.01	-0.05	0.16	0.54	0.51	0.49	0.16	0.76	0.76	0.14	0.79	0.11	0.07	0.30

주: 평가기관 쌍 상관계수는 모두 6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는 924개 기업의 2014년 ESG 점수를 바탕으로 한 것임.

자료: Berg, Koelbel, Rigobon(2022),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Review of Finance*, pp. 1-30.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가. ESG 평가 신뢰성 및 투명성

- 각국의 금융당국 등은 각자의 상황에 맞춘 표준 공시안을 발표하며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한편 ESG 점수간 불일치 중 일부는 평가사에서 '의도한' 불일치이기 때문에 평가사 간 상관관계를 신용평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나. 비상장기업 및 개발도상국 기업 ESG 평가

■ 지속가능 보고서 및 ESG 공시는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장사의 ESG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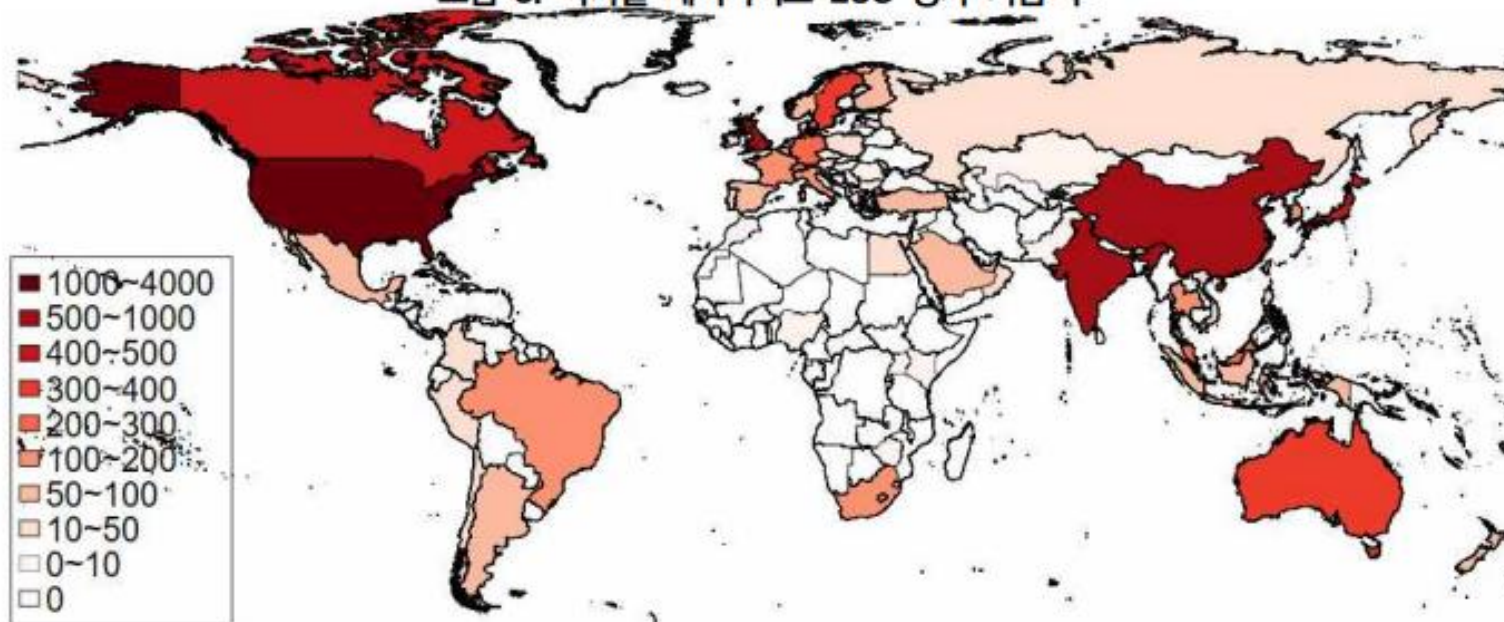
■ 스코프3의 의무공시 포함,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 및 여러 국가 내 유사한 형태의 규제로 인해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및 비상장사의 ESG 성과 및 위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이 외에도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 및 중소 기업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민·관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음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나. 비상장기업 및 개발도상국 기업 ESG 평가

그림 3. 국가별 레피니티브 ESG 평가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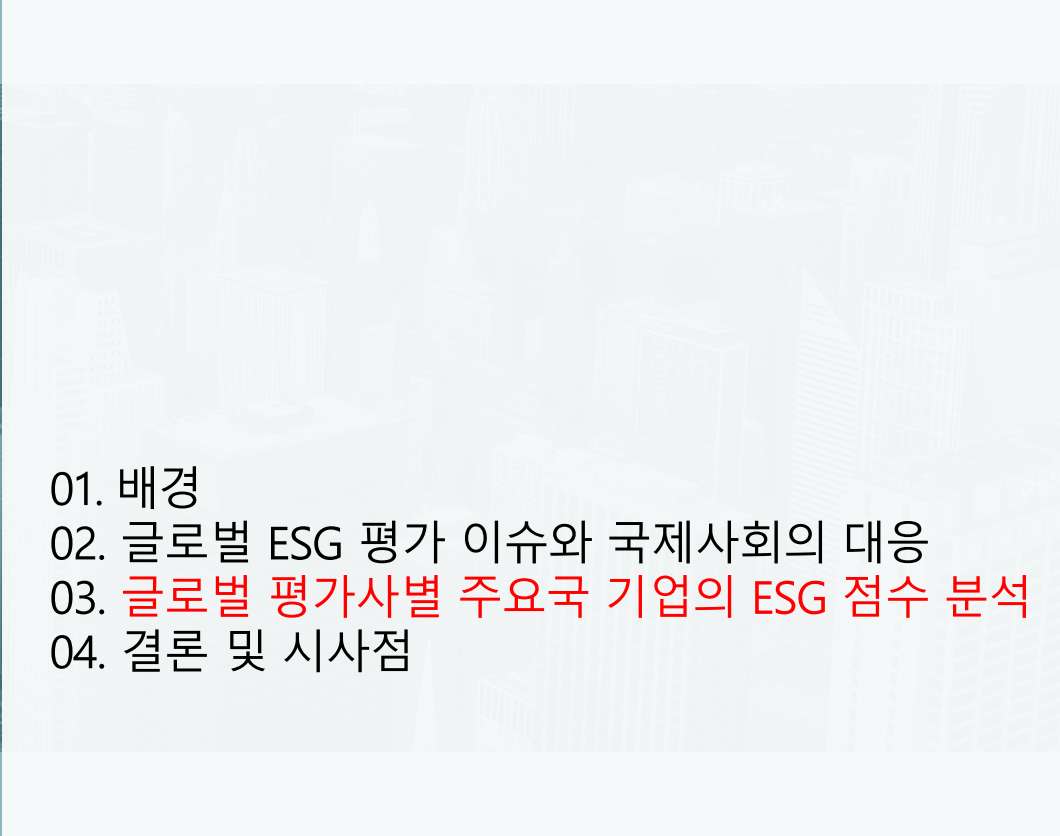
주: 2021년 기준 레피니티브가 평가하는 11,150개 기업의 국가 분포(본사 위치 기준)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다. ESG 평가 및 평가기관 규제

- ESG 평가 및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적 규제 범위 밖에 있음.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2021년 11월 ESG 평가기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함
- 2021년 IOSCO 권고 이후 각 국가에서 ESG 평가기관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음.

개요

- 
- 
- 
- 01. 배경
 - 02.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 03.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 04.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가. 평가사별 ESG 점수 특성

■ 본 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주요국 상장 기업의 무디스,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ESG 점수 및 공개 점수), 서스테이널리틱스, CDP의 ESG 및 영역별 점수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함. 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조항을 꾸준히 도입

■ 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사별로 상장 기업 평가 현황이 국가마다 상이함.

표 2. 국가/ESG 평가사별 평가 기업 숫자(2021년 기준)

국가	M(전체)	M-r	R	B	B-d	S	C
호주(AU)	1,938	284	389	35	311	160	165
캐나다(CA)	3,334	212	478	79	226	211	193
스위스(CH)	252	94	205	9	137	62	149
중국(CN)	11,319	75	1,057	121	1,242	595	687
독일(DE)	675	130	284	24	270	100	178
덴마크(DK)	179	28	68	7	53	26	42
프랑스(FR)	710	195	187	25	169	104	233
영국(GB)	1,524	350	665	43	459	240	354
인도(IN)	5,364	60	181	35	535	111	254
이탈리아(IT)	395	82	138	16	128	37	90
일본(JP)	3,893	554	469	36	2,027	388	568
말레이시아(MY)	950	33	67	20	119	36	54
노르웨이(NO)	312	27	85	10	82	60	55
스웨덴(SE)	946	67	344	10	196	105	130
싱가포르(SG)	555	32	96	5	67	21	31
미국(US)	6,994	807	3,195	254	1,677	889	720
한국(KR)	2,469	131	163	33	330	100	271
전체	41,809	3,161	8,071	762	8,028	3,245	4,174

주: M=무디스, M-r=무디스 평가 점수 중 실제 점수, R=레피니티브, B=블룸버그, B-d=블룸버그 공시점수(disclosure score), S=서스테이널리틱스, C=CDP. 무디스는 ESG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의 ESG 점수도 자체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하기 때문에 기업 숫자가 전체 상장기업 숫자와 유사함.

자료: 무디스, 레피니티브는 자체 데이터를, 블룸버그, 서스테이널리틱스, CDP는 블룸버그 데이터를 이용, 상기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 전체 및 레피니티브 평가대상 기업 요약 통계

구분	전체 국가		한국	
	무디스(전체)	레피니티브	무디스(전체)	레피니티브
로그(자산)	18.20 [2.994]	21.61 [2.075]	19.00 [1.784]	22.79 [1.698]
레버리지(부채/자산)	10.14 [557.3]	0.536 [0.294]	0.419 [0.320]	0.453 [0.202]
총자산이익률(순이익/자산×100)	126.4 [111462.1]	0.963 [27.88]	0.0121 [23.41]	5.211 [7.621]
현금흐름(백만 달러)	191.1 [1655.2]	984.1 [4120.5]	103.9 [1066.0]	1269.6 [3956.5]
자본집약도(백만 달러)	2.208 [62.41]	7.191 [173.0]	0.264 [0.730]	0.461 [1.288]
직원 수	4005.1 [25074.2]	15147.7 [51889.6]	708.3 [3605.3]	5855.0 [12584.2]
업력	26.38 [25.66]	33.33 [32.81]	27.82 [18.13]	37.53 [21.53]
유틸리티	1%	2%	0%	1%
건설업	2%	2%	2%	4%
제조업	39%	29%	65%	47%
금융	19%	17%	7%	20%
정보통신기술	10%	7%	12%	7%
전문서비스	8%	8%	4%	5%

주: 2021년 기준이며, 화폐 단위는 모두 USD임. 본문에는 레피니티브 점수가 있는 기업의 요약 통계만 포함하였으며, 다른 평가사를 기준으로 요약 통계를 구해도 결과는 비슷함. 대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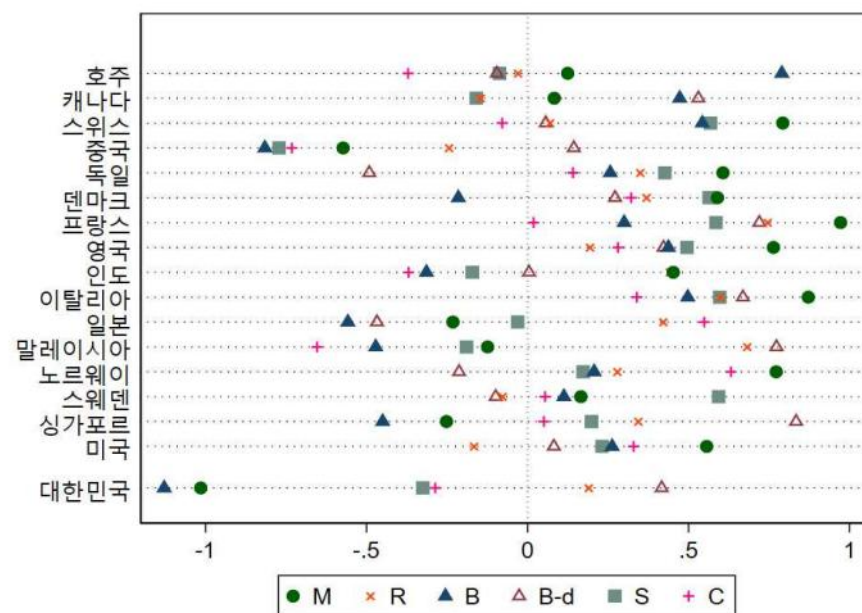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가. 평가사별 ESG 점수 특성

■ 국가별 ESG 점수 평균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평가사별로 상이하며, 한국기업은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공개 점수를 제외하면 17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그림 4. 평가사별 17개국 ESG 표준화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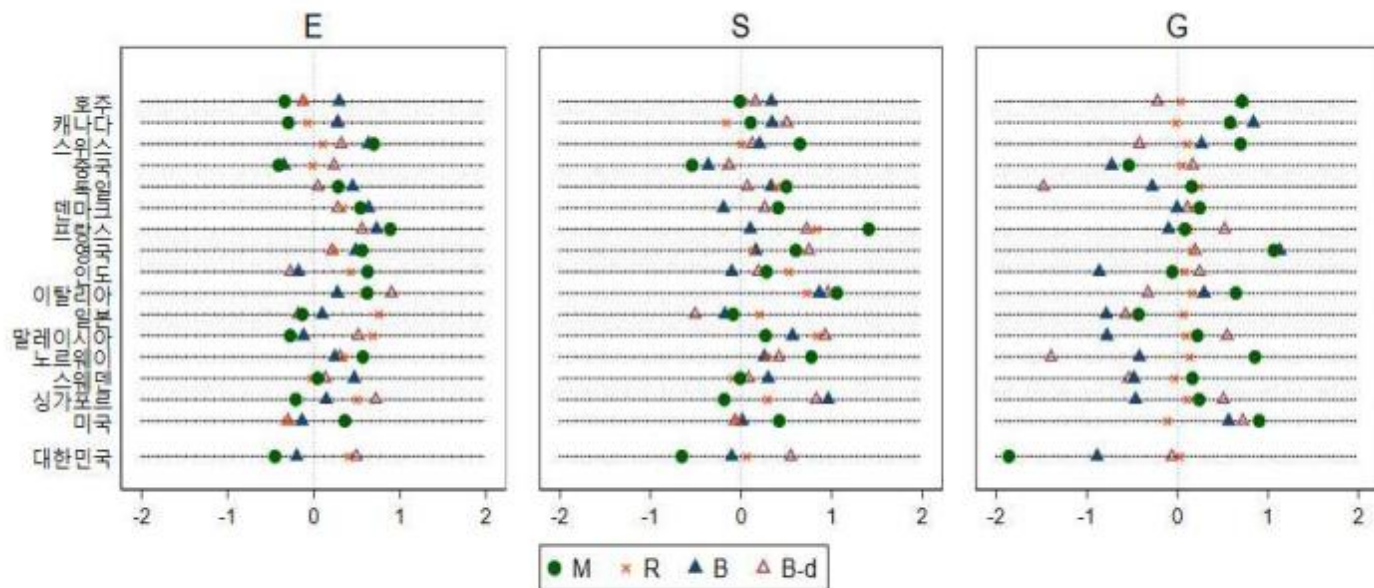
주: M=무디스, R=레피니티브, B=블룸버그, B-d=블룸버그 공시점수(disclosure score), S=서스테이널리티스, C=CDP. 각 평가사의 점수는 용이한 비교를 위해 정규화되었음. 서스테이널리티스의 ESG 위험 점수는 고득점일수록 ESG 위험이 크다는 의미(ESG 위기관리가 미흡)이기 때문에 정규화 후 -1을 곱해 양의 값을 가질 때 ESG 성과가 좋은 것으로 표준화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가. 평가사별 ESG 점수 특성

■ 국가별 기업의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E/S/G 영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임

그림 5. 평가사별·영역별 표준화 점수



주: M=무디스, R=레피니티브, B=블룸버그, B-d=블룸버그 공시점수(disclosure score). 각 평가사의 점수는 용이한 비교를 위해 정규화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나. 기업 특성 통제 후 국가별 평균 비교

■ ESG 점수는 기업의 재무구조나 산업·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별로 기업의 재무 특성 및 산업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국가별 ESG 점수 평균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국가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회귀분석식을 이용함.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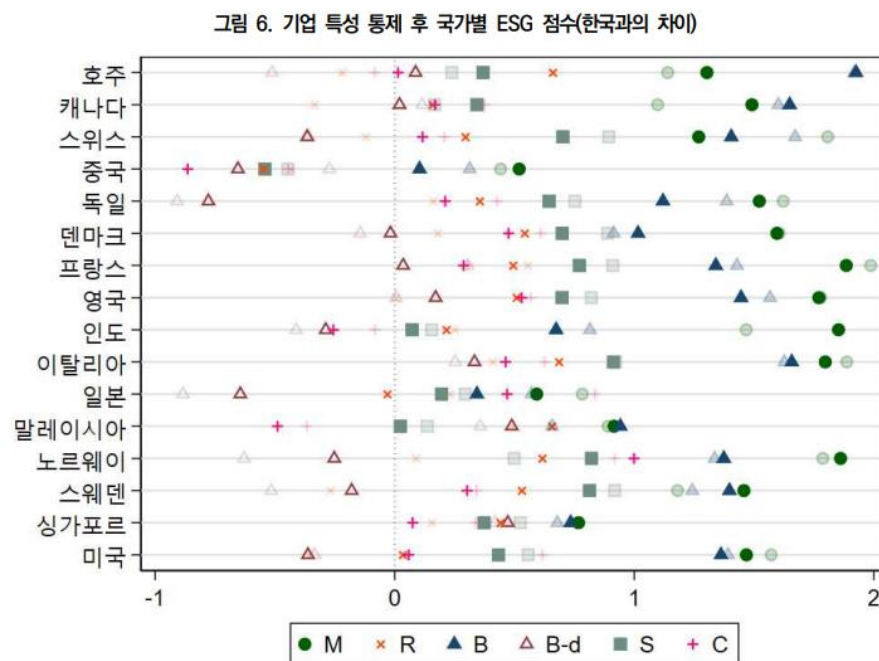
$$y_{isc} = \alpha_s + \gamma_c + \beta X_{isc} + \epsilon_{isc}$$

- 국가 고정효과(γ_c)는 ESG 및 영역별 점수(y_{isc})에서 산업 고정효과(α_s) 및 기업 재무 특성(X_{isc})를 통제한 국가별 평균을 의미²⁹⁾
- 회귀분석 결과, 기업 재무 특성 및 산업과 ESG 점수 간 상관관계가 크며, 이는 ESG 점수의 단순 평균 비교는 부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의미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나. 기업 특성 통제 후 국가별 평균 비교

■ [그림 6]에 따르면 블룸버그 공시점수를 제외하면 기업 특성 통제 후 우리나라의 전 기관 ESG 점수가 1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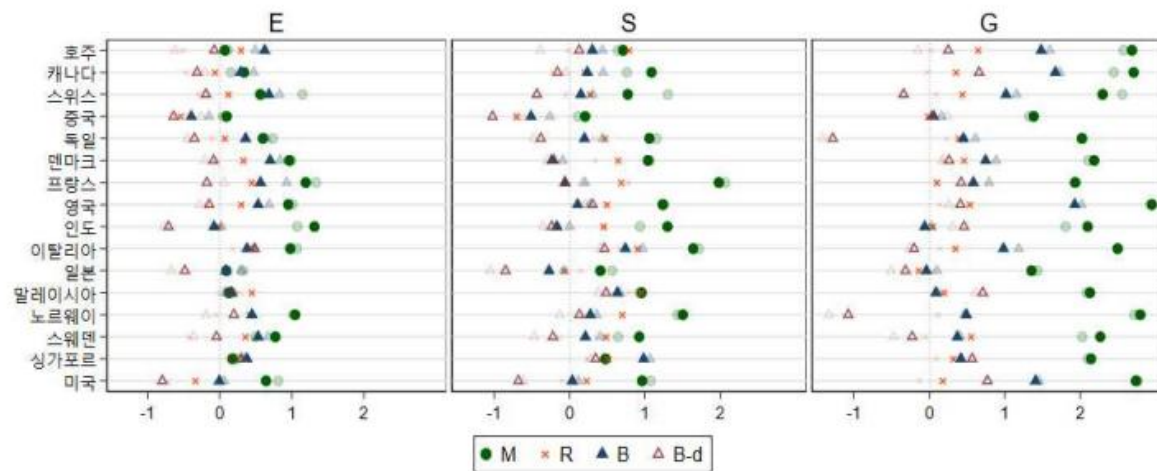
주: M=무디스, R=레퍼니티브, B=블룸버그, B-d=블룸버그 공시점수(disclosure score), S=서스테이널리티스, C=CDP.
 각각의 마커는 회귀분석에서 우리나라를 기본범주로 하는 국가 고정효과 값을 나타냄. 투명한 마커는 기업의 재무 특성 및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 차이로, [그림 4]의 국가 평균에서 한국 평균을 빼면 투명한 마커와 같아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림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나. 기업 특성 통제 후 국가별 평균 비교

■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모든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함.

그림 7. 기업 특성 통제 후 국가별 영역 점수(한국과의 차이)



주: M=무디스, R=레피니티브, B=블룸버그, B-d=블룸버그 공시점수(disclosure score). [그림 6]의 주 참고.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나. 기업 특성 통제 후 국가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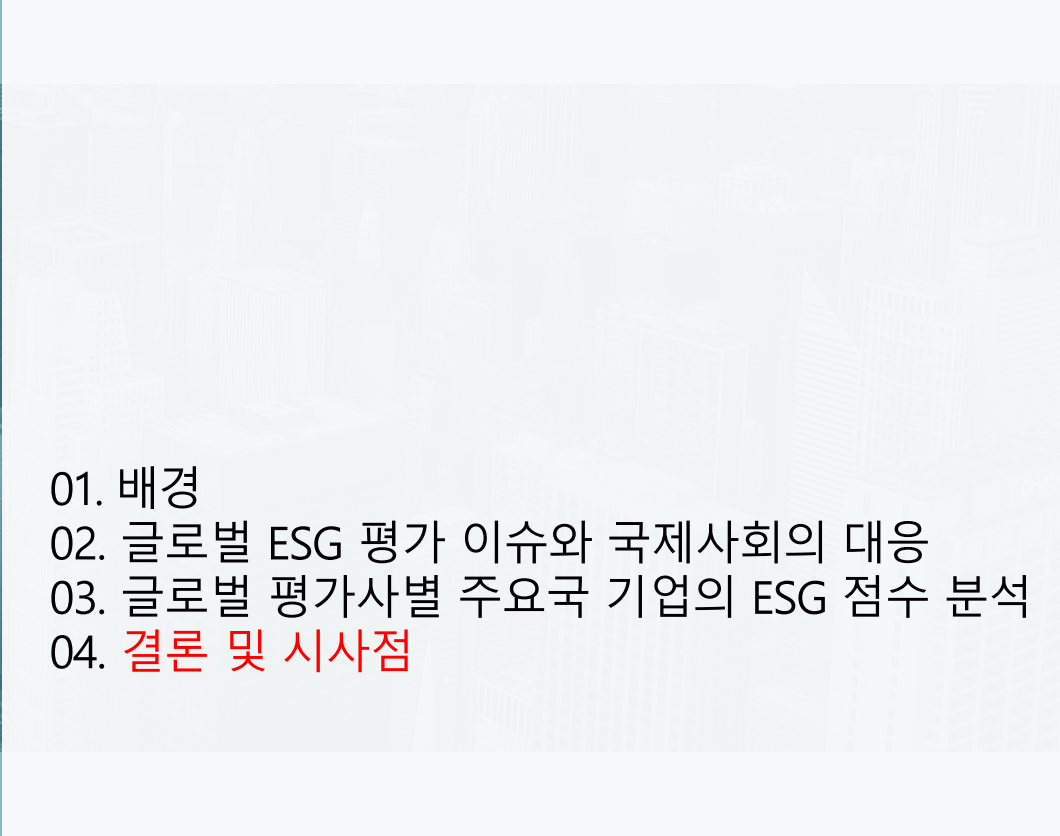
■ 비슷한 방법으로 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 국내 기업과 다른 국가의 E, S, G 영역별 평균 점수 차이를 추정하였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전 영역에서 블룸버그 공시점수를 제외하면 하위권을 차지함.

표 4. 기업 특성 통제 전후 우리나라의 평균 점수 순위

구분	ESG		E		S		G	
	통제 전	통제 후	통제 전	통제 후	통제 전	통제 후	통제 전	통제 후
무디스	17	17	17	16	17	17	17	17
레피니티브	11	15	7	13	11	15	14	15
블룸버그	17	17	16	14	14	12	17	15
블룸버그-공시	7	8	5	5	6	7	10	11
서스테인리틱스	16	16						
CDP	13	14						

주: [그림 6]과 [그림 7]을 바탕으로 순위를 계산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개요

- 
- 
- 
- 01. 배경
 - 02. 글로벌 ESG 평가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응
 - 03. 글로벌 평가사별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분석
 - 04.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 [ESG 평가기관 및 ESG 데이터 제공업체에 대한 시사점] ESG 평가기관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평가 방법론, 평가 목표 및 차별성을 적은 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책 시사점] 더 많은 기업이 ESG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ESG 평가기관 및 데이터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평가기관의 ESG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의 성과가 국제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ISSB와 같은 국제표준공시가 제정되는 것은 ESG 평가의 방향 역시 국가·지역별 개별 표준이 아닌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함.

결론 및 시사점

부표 1. ESG 평가 점수와 기업 특성

구분	M (1)	R (2)	B (3)	B-d (4)	SA (5)	CDP (6)
로그(자산)	0.1561*** (0.0048)	0.2422*** (0.0159)	0.3267*** (0.0341)	0.2634*** (0.0158)	0.0065 (0.0194)	0.1814*** (0.0122)
레버리지	0.0000** (0.0000)	-0.0507 (0.0399)	-0.5578** (0.2656)	-0.0746 (0.0617)	-0.1759** (0.0810)	0.0676* (0.0368)
현금흐름(백만 달러)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총자본이익률(%)	-0.0000 (0.0000)	0.0002 (0.0008)	0.0102** (0.0040)	0.0002** (0.0001)	0.0099*** (0.0020)	0.0031*** (0.0010)
자본집약도(백만 달러)	-0.0000 (0.0000)	-0.0000 (0.0000)	0.0016* (0.0009)	-0.0008*** (0.0002)	0.0007*** (0.0002)	-0.0001 (0.0003)
로그(직원 수)	0.2206*** (0.0196)	0.1765*** (0.0188)	-0.0352 (0.0337)	0.1510*** (0.0199)	0.0943*** (0.0262)	0.1736*** (0.0191)
업력(년)	0.0018*** (0.0004)	0.0041*** (0.0007)	-0.0006 (0.0022)	0.0010 (0.0008)	-0.0012 (0.0010)	0.0019* (0.0010)
업력 ²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R ²	0.633	0.473	0.487	0.503	0.363	0.405
관측치	41,809	8,071	762	8,027	3,245	4,174

주: 모든 회귀분석에 산업,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모든 화폐단위는 USD임. 재무 변수는 모두 2021년을 이용하였고, 2021년 재무 정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결측치 처리함. 결측치가 포함된 기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결측치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결측치 여부와 재무 특성을 상호작용(interact)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재무 특성은 무디스와 레피니티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으며 두 값의 평균을 이용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3. EU

1) 디지털통상규범 수립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태도

2) EU의 기체결 FTA 협정

- 2003년 EU-칠레 협력협정 :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도입한 최초의 협정
- 2008년 EU-CARIFORUM : 협력이 필요한 이슈 나열 (정보이전 및 저장관련 책임, 스팸메일, 온라인소비자 보호 이슈 등)
- EU-캐나다의 CETA :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목적과 범위, 다른 장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무관세 조항, 대화채널을 통한 협력 등) 풍부한 내용의 조항
- EU-베트남 FTA : 전자상거래 규제협력 조항 포함
- EU-싱가포르 FTA : 법적 구속력은 부재하고 중요성을 확인하는 모양이지만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
- EU-일본 FTA : 기술중립성의 중요성 확인
- EU-멕시코 FTA : 최초로 디지털 통상이라는 명칭 분류 사용
최초로 '개방적인 인터넷 접근 (Open Internet Access)' 조항 도입
의무를 보다 원활하게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4. 중국

- 1) 중-뉴질랜드 FTA : 처음으로 자국 FTA에서 중국이 전자상거래를 언급
중-한 FTA :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촉진, 발전장벽 제거 목표 제시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 규정에서 'Shall' 이라는 의무를 의미하는
문구 대신 'Will' 이라는 단어를 통해 법적 의무 부여 경계
→ 각국이 무관세화 관행 변경할 수 있다는 권한 각주에 추가
중-호주 FTA : 적어도 현재의 무관세화 관행만큼은 명백한 의무조항이라는 점이
중-한 FTA와의 차이점
- 2) 중국이 체결한 FTA 상 전자상거래 조항의 가장 큰 문제점
: 분쟁발생 시 FTA 내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 3) RCEP를 통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 맞이함 → 분쟁발생 시 공동
위원회 사안을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분쟁해결 절차의 미래이용가능성도 일부 열어둠

개요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제 1장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및 현황 ?

- 서론
-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 결론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1.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1) 배경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디지털통상 규범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시작
- 1998년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문` 채택
-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약속

2) 주요 진전

- 1998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합의
-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를 다루며, 국제 상거래의 중요한 성과 제시
- MIKTA와 같은 협력 그룹 형성.
-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규범 개발 노력 지속.

3)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 (2023.2)

-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DEPA) 추진.
- 2019년 WTO 전자상거래 협정의 중요성과 회원국 간 협력 필요성 강조.
- 다양한 국가들이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 노력.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2.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1) DEPA 개요

- 2023년 6월 한국은 DEPA 가입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 주요 가입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2) DEPA 주요 특징

- 기존 디지털통상 규범과 달리, '모듈형 접근법'으로 각 카테고리별 조항 포함
- 종이 없는 무역,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조항 포함

3) 한국의 DEPA 참여

- 2021년 11월 23일 가입 발표
- 2022년 12월 국내 절차 완료
- 2023년 8월 가입 의정서 체결
 - 한국의 DEPA 가입으로 인한 9개의 추가 의정서 포함

개요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제 1장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및 현황 ?

- 서론
-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 결론

- 1) WTO 차원에서의 디지털통상규범 수립 지연에 따른 FTA하의 디지털통상규범의 확대
- 2) 양자 차원의 디지털통상규범 뿐 아니라, WTO 차원에서도 2019년 출범한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적으로 추진
- 3) 디지털통상규범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확대뿐 아니라 DEPA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형식적 측면에서의 혁신도 가져오고 있음
 - 향후에는 보다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